

내게로 오라

성경말씀: 마11:20-30

기독교는 무엇인가? Christianity, 기독교(그리스도)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믿는 종교

칼빈주의,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주어이고 나머지는 형용사이다.

그런데 형용사가 잘못 되었으면 바꾸든지 버려야 한다. 주어로 돌아와야 한다.

‘교회에 왜 오는가?’라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 되어야 한다. ★★★

그 기초 위에 바른 것들을 세울 수 있다. ‘내게로 오라.’, 아이들
두 부류의 사람들

자기 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심. 기적과 표적을 행하심

그들의 반응: 그분이 마귀들의 통치자 바알세불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동시에 매우 이상한 일이 생김: 20-24절, 가장 많은 기적들을 행한 도시들이 더 믿지 않음
그분께서 꾸짖기 시작하신다(20절). 처음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온다.

언제나 부드러운 방법이 먼저다. 정 듣지 않으면 꾸짖는 방법이 동원된다.

문제가 무엇인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다.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다. 특징: 딤후3:5-7, 우리는 어떤가? ★★★

이런 자들의 특징: 렘2:27, 교회에 나오면서 내 뜻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가? ★★★

이런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24).

자기 것을 버리는 사람들

그때에 주님이 응답하여 말씀하셨다. 누가복음 10:21, 영 안에서 기뻐하셨다.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의미심장하다.

우리 주변을 볼 때 모두 낙심되는 일만 있다. 하늘을 보아야 소망이 있다.

아버지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것을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드러내셨다. ★★★
시8:2, 고전1:18-31, 고전 2:9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학식, 명예, 권세, 재능이 많은 자들은 하나님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다.

부여된 특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교만해진다. 교만이 가장 큰 죄이다.

예수님의 12제자들, 다 아기들이다. 별 볼일 없는 자들이다.

우리는 아기들인가? 지혜로운 자들인가? ★★★

아기들의 특징:

1. 부모 없이는 못 산다.
2. 젖 없이는 못 산다(벧전2:2).

기독교의 특징

1.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주인이다. 창조자다(25절). ★★★

2. 삼위일체 하나님(27):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 한 하나님, 동등하시다(존재, 능력, 권위, 영광).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한다.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만 아버지를 안다.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다 마귀를 아버지로 둔다. 구원받은 자들만 아버지를 안다. 부른다.

‘아바,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는다.

아들이 누구신가: 요1:1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요14:1-11, 도마의 질문,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यो, 진리이다.

빌립의 요청,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17:3, 유일하신 아버지와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분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셔서 속죄 사역을 이루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그 순간 죽어 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원한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

성령님의 내주: 가르치고 꾸짖고 인도하신다.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세 분이 모두 관여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실제 속죄를 하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한다. 예수님 없이는 기독교가 쓰러진다: 목사, 집사, 감독, 교회 등은 없어도 예수님은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초청

그리고는 예수님이 초청을 하신다.

1.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28절). ★★★

모든 사람을 부르신다. ★★★

부처, 공자, 맹자,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단군……, 다 미친한 존재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

누구만 가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

왜 사는지 삶에 회의가 드는 자, 죄로 눌러 혈떡거리는 자

종교 생활에 찌든 자

어떤 사람 이야기: 죄 짐이 무겁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해요. 죽은 자는 지구를 가져다 덮어도 못 느낀다. 산 사람만 느낀다.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죄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이상한 일

그런데도 소망이 넘친다: 가장 비관적인 사람이요, 가장 낙관적인 사람이다.

2.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29절).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나셨다. 슬픔, 고통, 피곤, 갈증, 허기짐, 사람의 죽음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분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신다.

3. 예수님은 영혼의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29절).

교회 나오는 목적: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다. 부귀영화가 아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마20:20-26), 그분의 잔과 그분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

어느 자매님의 고백, 중국 자매님

우리가 할 일

그분의 명예를 배고 그분에게 배워야 한다(29절).

내 것을 접어야 한다. ★★★

명예가 없이는 소를 부릴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명예를 매야 한다.

그것은 바른 말씀과 교리이다. ★★★

딤후3:16

그것을 배워서 내 위에 두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분의 명예는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가볍다.

결론

당신은 지혜로운 자인가, 아기인가?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가?

당신은 구원자 예수님을 아는가?

당신은 위로자 성령님을 아는가?

당신은 구원자 예수님의 명예를 매고 배우기 원하는가?

심판의 때가 다가온다, 우리의 일을 불로 시험하는 때가 온다(고전3:).

예수님이 주시는 영혼의 안식이 여러분을 인도하기 바란다.